

2008 하반기 국제 통상환경 전망

무역투자정책실

1. DDA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2. 세계 지역무역협정 추진동향 및 전망
3. 무역 현황 및 전망
4. 투자 현황 및 전망

주요 내용

- ▶ DDA 협상은 최근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합의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당분간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주요국이 소규모 각료회의의 결과를 향후 협상의 출발점으로 하자는 데 반대하지 않고 있어 금년 가을부터 분야별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금년 말까지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2008년 신규로 WTO에 통보·발효된 지역무역협정은 9건이며, 현재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8년 하반기에도 FTA 체결 및 발효 건수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DDA 소규모 각료회의의 결렬로 세계 각국은 무역자유화의 수단으로 다자협상보다는 양자 또는 지역간 무역자유화 등 FTA에 더욱 비중을 두게 될 것으로 전망됨.
- ▶ 2008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2008년 상반기 61억 7,1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함. 2008년 하반기 무역수지는 무선통신기기, 선박, 일반기계 수출의 호조 및 對개도국 수출증가 등이 지속되고, 고유가의 거품이 서서히 견히면서 균형 내지 소폭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 ▶ 2008년 2/4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18억 달러로 전기 대비 증가율은 2분기 연속 30% 이상 감소하였으나, 2008년 상반기 전체로 외국인직접투자는 45.5억 달러로 양호한 실적을 보임. 2008년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금융공기업의 매각이 시행되는 등 국내개혁조치가 가시화되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Global Insight의 높은 투자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전 2분기의 투자가 많았고, 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의 투자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1. DDA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가. DDA 협상의 최근 동향: 소규모 각료회의 결렬

- 2008년 7월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소규모 각료회의가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접근(NAMA)분야의 핵심 쟁점에 대한 잠정 타협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도출에 실패한 채 막을 내렸음.
- 소규모 각료회의를 주재한 세계무역기구(WTO) 라미 사무총장은 무역협상위원회(TNC)회의와 그린룸(GR: Green Room) 회의를 번갈아 개최하면서 농업과 NAMA분야의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 회원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려 노력해 왔음.
 - 각료회의 초기 TNC회의와 그린룸회의에서 협상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라미 사무총장은 예정된 그린룸회의를 취소하고 7월 23일부터 주요 7개국(G7: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G4에 호주와 일본 및 중국이 추가되어 G7을 형성)회의를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안 마련에 집중하였음.
- 이후 G7 중심의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7월 25일 보조금 및 관세감축 등 농업과 NAMA의 핵심 쟁점에 관한 잠정 타협안이 도출되었으며, 이후 소집된 그린룸회의에서 라미 사무총장이 발표한 G7 잠정 타협안은 큰 틀에서 큰 이견 없이 참가국 각료들에 의해 받아들여졌음.
- 그러나 계속된 'G7 잠정 타협안'의 다자화과정에서 인도와 중국이 개도국 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NAMA에서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분야별 자유화(Sectoral liberalization)'에서 일부 수정을 요구하면서 잠정 타협안 수용여부에 관한 입장을 유보하였음.
- 이후 인도와 중국 등이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G7간 의견 절충 과정에서 개도국 긴급관세 발동에 따른 추가관세부과시 UR 양허세율 초과조건에 대해 미국과 인도는 심각한 마찰을 빚었고, NAMA의 분야별 자유화에서도 중국 및 개도국들의 강경한 입장 고수 등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자, 라미 사무총장은 7월 29일 저녁 TNC회의를 소집해 이번 소규모 각료회의의 결렬을 선언하였음.²⁾

1) 그린룸(Green Room: GR)회의는 통상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관례적으로 이용되는 소규모 비공식회의로서 보통은 주요국 통상장관 또는 현지 제네바 대사들이 참석함.

나. DDA 협상 전망

- DDA 협상은 소규모 각료회의의 합의도출 무산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 가을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재개될 것으로 보임.
 - 라미 사무총장은 7월 31일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GC)에서 이번 소규모 각료회의의 결과를 정리하는 성격의 status paper를 작성·배포할 것임을 표명하면서, 비록 이번 소규모 각료회의가 세부원칙의 도출에는 실패했으나 각료회의의 논의결과를 향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데는 반대하는 회원국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음.
 - 미국과 브라질, 인도 등도 이번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제안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8월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4개국 정상간 DDA 협상재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라미 사무총장은 DDA 협상의 추진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9~10월경 분야별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협상이 재개되어도 주요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세부원칙의 도출 등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음.
 - 농업과 NAMA에서는 SSM, 분야별 자유화 등을 비롯하여 각료회의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잔여 쟁점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수는 있을 것임.
 - 그러나 미국의 대선이 12월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내년 2월이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협상대표의 경질이나 미국의 DDA 협상목표 자체가 바뀔 수도 있음. 또한 무역촉진권한(TPA)이 없는 상황에서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은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의회와의 사전 입장조율이 필수적임.
 - 따라서 금년 가을 이후 내년 초까지는 DDA 협상에서의 미국의 커다란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최소한 내년 2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협상진용이 새롭게 개편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봄.
 - 인도도 내년 봄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EU도 내년 봄 집행위원회의 교체가 있을 예정이며, WTO 사무총장인 라

2) 결렬 원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08-28호(2008. 8. 6) 참조

미도 내년 상반기 중 임기가 종료됨.

- 따라서 금년 말까지 DDA협상의 특별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주요국의 정치 일정이 마무리되고 WTO 사무국이 안정화되는 2009년 9월이 되어야 실질적 협상 재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아 있는 세부 쟁점에 대한 치밀한 협상전략을 준비함은 물론 국별 이행계획서의 사전 준비도 필요함.
- 특히 농업에서는 내부적으로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의 선정을 마무리 짓고, NAMA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2. 세계 지역무역협정 추진동향 및 전망

가. 세계 RTA 추진 동향

- 2008년 7월 18일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은 총 211건으로 이 중 자유무역협정이 1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협정이 55건, 개도국간 특혜협정(Preferential Arrangement)이 26건,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13건임.
- 2008년 들어 신규로 WTO에 통보·발효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9건으로 EC-몬테네그로 FTA(1.1 발효), 파키스탄-말레이시아 FTA 및 서비스협정(1.1 발효), 칠레-파나마 FTA 및 서비스협정(3.7 발효), 터키-알바니아 FTA(5.1 발효), 일본-인도네시아 FTA 및 서비스협정(7.1 발효), EC-보스니아 FTA(7.1 발효) 등임.

표 1. 유형별 지역무역협정체결 현황 (2008. 7. 18 현재)

GATT/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회원국확대 (Accessions)	신규 RTA 체결 (New RTAs)	총계 (Total)
FTA (GATT 제24조)	2	115	117
CU (GATT 제24조)	6	7	13
개도국간 협정 (Enabling Clause)	1	25	26
서비스협정 (GATS 제5조)	3	52	55
총계(Total)	12	199	211

자료: WTO 홈페이지, <http://www.wto.org>

표 2.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2008. 7. 18 현재)

	FTA/C U	서비스 협정	개도국 간 협정	활동 중지	총계	누계
1995	16	6	1	14	9	99
2000	14		2	2	14	168
2001	12	7	1		20	188
2002	14	4	1	1	18	206
2003	14	3	1	3	15	221
2004	23	7		67	-37	184
2005	10	8	1	1	18	202
2006	12	9	2	1	22	224
2007	8	4	1	35	-22	202
2008.7.18	5	3	1		9	211
총계 ('48~ '08.7)	310	65	27	191	211	

자료: WTO 홈페이지, <http://www.wto.org>

- 한편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이외에도 다수의 FTA가 2008년 상반기 동안 추가적으로 타결되었거나 새로 협상이 개시되었는바, 주요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음.

표 3. 세계 RTA 신규 타결/발효 및 개시 동향(2008년 상반기)

협상타결/발효	개시
MERCOSUR-이스라엘 FTA (08.1 서명)	
페루-캐나다 FTA (08.1타결)	
캐나다-EFTA FTA (08.1 타결)	
싱가포르-GCC FTA (08.1 타결)	
GCC 공동시장 (08.1.1 발효)	한국-멕시코 FTA협상 (07.12 개시)
파키스탄-말레이시아 FTA (08.1 발효)	미국-말레이시아 FTA협상 (08.1 재개)
SADC FTA (08.1.1 발효)	중국-페루 FTA 협상 (08.1 개시)
파나마-과테말라 FTA (08.2 서명)	캐나다-CARICOM FTA 협상 (08.2 개시)
파나마-칠레 FTA (08.3 발효)	캐나다-요르단 FTA 협상 (08.4 개시)
대만-엘살바도르 FTA (08.3.1 발효)	한-GCC FTA 협상 (08.7 개시)
싱가포르-GCC FTA (08.3 타결)	
중국-뉴질랜드 FTA (08.4.7 서명)	
중-칠레 FTA 서비스협정 (08.4.13 서명)	
호주-칠레 FTA (08.5.27 타결)	
싱가포르-페루 FTA (08.5.29 서명)	
캐나다-콜롬비아 FTA (08.6.7 타결)	
일본-인도네시아 EPA (08.7.1 발효)	
대만-온두라스 FTA (08.7.15 발효)	

■ **걸프만협력회의(GCC)³⁾ 6개국**은 2008년 1월 1일자로 공동시장을 출범시켰으며, 또한 2010년까지 미 달러화에 고정된 화폐통합을 추진키로 함.

- GCC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걸프 공동시장(Gulf Common Market)은 생산효율성의 향상과 자원의 적정이용을 도모하고 국제경제포럼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표함.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등 6개국 간에 체결된 관세동맹형태의 경제협력체.

■ **이 밖에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도** 2008년 1월 1일자로 FTA를 출범시켰으며, 지난 2007년 1월 개시되었던 싱가포르-GCC FTA 협상은 총 4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8년 3월 공식 타결됨.

*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남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을 위해 1992년 8월에 창설된 경제협력체로서 회원국은 남아프리카 14개국임.

- 싱가포르-GCC FTA는 상품,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관세 등을 포함하며, GCC가 중동지역 밖에서 타결한 첫 FTA로서의 의미를 지님.

■ 또한 일본-인도네시아 EPA가 7월 1일 발효된바, 일본-인도네시아 EPA는 인도네시아가 최초로 맺은 양자간 지역무역협정으로, 동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수입액 기준으로 99%에 해당하는 품목, 일본은 92%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됨.

- 이 밖에도 중국과 칠레는 지난 2005년 체결한 양국간 FTA의 보충협정에 따라 양국간 서비스협정문에 공식 서명(2008년 4월)하고 양국의 서비스 분야를 WTO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함.

- 또한 중국과 뉴질랜드는 협상개시 3년 만에 양국간 FTA 협상에 서명(2008년 4월)하였는바, 동 협정은 중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첫 번째 FTA이자 현재까지 중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FTA로 평가받고 있음.

3) GCC(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등 6개국 간에 체결된 관세동맹형태의 경제협력체를 의미

- 아울러 호주-칠레 간 FTA도 타결(2008년 5월)된바, 양국은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등에 걸쳐 포괄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양국간 교역품의 97%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함.

■ 한편, 우리나라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금년 7월 GCC와 제1차 FTA 협상을 개최함.

표 4. 우리나라의 FTA 추진동향(2008.7 현재)

기 체결된 FTA	협상 중인 FTA	검토 중인 FTA
한-칠레 FTA	한-ASEAN FTA(투자)	한-중 FTA
한-싱가포르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EFTA FTA	한-인도 FTA	한-뉴질랜드 FTA
한-ASEAN FTA (상품/서비스협정)	한-EU FTA	한-MERCOSUR FTA
한-미 FTA	한-멕시코 FTA	
	한-일 FTA (협상중단)	
	한-GCC FTA	

자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 한·EU FTA 협상과 관련, 양국은 동 FTA 협상을 금년 내에 타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통상장관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나가고 있음.

- GCC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해 왔는바, GCC 내 우리 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이들 국가보다 먼저 타결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가 GCC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대부분 에너지 관련 품목(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이고, 우리나라의 수출은 대부분 제조품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이어서 쉽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각종 비관세장벽(현지 Agent선임제도, 현지인 의무고용제도 등)제거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 일본과는 금년 6월 말 FTA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최근 불거진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인해 양국간 FTA 논의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음.

나. RTA 추진 전망

■ FTA 협상은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DDA의 진전 여부에 따라 세계 각국의 FTA 정책도 추진 양상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런데 지난 2001년부터 7년간 진행되어 온 세계무역기구(WTO) DDA 협상이 금년 7월 말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회원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됨에 따라 당분간 세계 각국의 FTA 정책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즉, 세계 각국이 무역자유화의 수단으로 다자협상이 용이하지 않게 되자 양자 또는 지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FTA에 더욱 비중을 두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현재 다수의 FTA가 협상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8년 하반기에도 FTA 체결 및 발효 건수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GCC-EFTA 간 FTA가 금년 내 공식 서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본-스위스 간 FTA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바 양국은 공산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했으나 스위스가 가공식품 외에 낙농제품, 포도주 등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를 요구하면서 양국간 막바지 의견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태국-인도 간 FTA도 양국간 주요 쟁점이 대부분 합의됨에 따라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호주-뉴질랜드-ASEAN FTA도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와 관련, 한·EU FTA, 한-인도 CEPA는 최근 협상 쟁점들이 좁혀짐에 따라 연내 타결이 가능성이 높아짐.

- 한·인도 CEP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바, 동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은 조기 관세철폐를 관철시키려고 노력 중이며, 인도는 독립전문가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양국간 패키지 딜이 성사될 경우 연내 타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이 외에도 러시아와 및 터키와의 FTA공동연구가 진행되는 등 금년 하반기에도 여러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위한 사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임.

- 2007년 시작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농업 챗터에서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 하지만, 산관학 공동연구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한·중 FTA에 대한 신중론이 우세함에 따라, 연내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은 낮음.

- 금년 6월 말, 한·일 FTA협상 재개의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자간 회의가 있었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종료됨. 게다가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인해 양국간 감정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당분간 FTA 협상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 무역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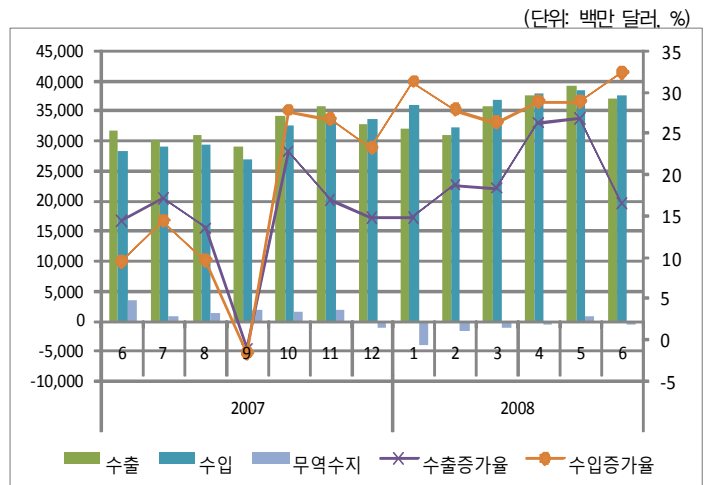
가. 무역 현황

■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2008년 상반기 61억 7,100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함.

- 2008년 상반기 수출은 2,139억 3,3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0.4% 증가한바, 이는 2004년 상반기(38.4%)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임. 그러나 2008년 상반기 수입이 29.3% 증가(2,201억 400만 달러)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함.

-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2005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07년 12월 이후 지속적인 적자 추세를 나타냄(단, 2008년 5월에는 흑자를 기록하였음).

그림 1. 수출입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08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對중국, 일본 수출이 예년에 비하여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

는 점임. 또한 ASEAN, 중남미, CIS 등의 개도국에 대한 수출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반면, 對미국 수출은 미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2008년 상반기 1.4% 증가하는 데 그쳐 저조한 실적을 기록함.

표 5.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6월
전체 수출	284,419 (12.0)	325,465 (14.4)	371,489 (14.1)	213,933 (20.4)
미국	41,343 (-3.5)	43,184 (4.5)	45,766 (6.0)	23,395 (1.4)
EU	43,659 (15.4)	49,240 (12.8)	55,982 (15.6)	30,205 (10.8)
일본	24,027 (10.7)	26,534 (10.4)	26,370 (-0.6)	14,672 (15.0)
중국	61,915 (24.4)	69,459 (12.2)	81,985 (18.0)	48,336 (27.5)
ASEAN	27,432 (14.2)	32,006 (16.9)	37,495 (20.8)	25,315 (36.6)
중남미	14,987 (29.6)	20,591 (37.4)	25,781 (25.2)	15,477 (29.5)
CIS	5,461 (51.4)	7,241 (32.6)	11,313 (56.1)	7,226 (37.7)

주: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주요 품목별로는, 2008년 상반기에 들어 석유제품의 높은 수출증가율(84.0%)이 두드러지며,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호조를 나타냄(전년 동기간 대비 29.8% 증가).

표 6.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6월
전체 수출	284,419 (12.0)	325,465 (14.4)	371,489 (14.1)	213,933 (20.4)
반도체	29,986 (13.1)	37,360 (24.6)	39,045 (4.5)	17,559 (-7.0)
자동차	29,506 (11.0)	32,922 (11.6)	37,284 (13.2)	19,131 (3.8)
무선통신기기	27,495 (4.9)	27,018 (-1.7)	30,458 (12.7)	17,774 (29.8)
컴퓨터	14,117 (-17.6)	12,576 (-10.9)	13,808 (9.8)	6,182 (-3.6)
선박류	17,727 (13.2)	22,123 (24.8)	27,777 (25.6)	18,858 (21.6)
석유제품	15,366 (50.6)	20,404 (32.8)	23,966 (17.5)	18,214 (84.0)
합성수지	10,304 (22.3)	11,177 (8.5)	13,000 (16.3)	7,801 (27.7)
철강판	10,215 (19.8)	10,997 (7.7)	12,375 (12.5)	7,801 (21.9)

주: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반면 주력 수출품의 하나인 반도체의 수출은 2007년부터 수출가 하락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여 2008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7.0% 감소하였음.

- 석유제품이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 유가 상승분이 제품의 수출가격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석유제품의 수출가 상승은 결과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증가를 부분적으로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국가별 수입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해 2008년 상반기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보임.

- 미국, EU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은 2007년에 비해 다소 떨어진 반면, 일본, ASEAN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표 7.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6월
전체 수입	261,238 (16.4)	309,383 (18.4)	356,846 (15.3)	220,104 (29.3)
미국	30,586 (6.3)	33,654 (10.0)	37,219 (10.6)	19,693 (6.6)
EU	27,296 (12.9)	30,168 (10.5)	36,824 (22.5)	20,668 (17.4)
일본	48,403 (4.9)	51,926 (7.3)	56,250 (8.3)	31,708 (14.3)
중국	38,648 (30.6)	48,557 (25.6)	63,028 (29.8)	38,862 (29.8)
ASEAN	26,064 (16.4)	29,743 (14.1)	33,110 (11.3)	21,510 (32.9)
중동	47,395 (40.8)	62,531 (31.9)	67,541 (8.0)	50,250 (65.9)
CIS	4,507 (-1.0)	5,134 (13.9)	8,008 (55.9)	4,647 (26.1)

주: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로는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 전체 수입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대체수요 증가 및 국제가 격상승으로 인해 석탄 수입이 급격히 늘어남. 또한 철강재의 국제가격 급등에 따라 철강판 수입도 급증함.

표 8.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1~6월
전체 수입	261,238 (16.4)	309,383 (18.4)	356,846 (15.3)	220,104 (29.3)
원유	42,606 (42.4)	55,865 (31.1)	60,324 (8.0)	43,673 (61.9)
반도체	25,133 (6.4)	28,043 (11.6)	30,817 (9.9)	16,757 (13.0)
컴퓨터	7,797 (13.7)	9,035 (15.9)	9,896 (9.5)	5,353 (15.4)
석유제품	7,783 (13.7)	9,559 (22.8)	11,969 (25.2)	8,649 (46.9)
천연가스	8,646 (32.0)	11,925 (37.9)	12,653 (6.1)	9,774 (57.9)
철강판	7,498 (31.3)	7,928 (5.7)	10,150 (28.0)	7,808 (59.0)
석탄	5,443 (22.6)	5,318 (-2.3)	6,445 (21.2)	5,344 (77.9)
정밀화학원료	3,980 (17.7)	4,488 (12.8)	5,403 (20.4)	3,463 (33.6)

주: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무역 전망

■ 무선통신기기, 선박류, 반도체,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하반기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무선통신기기는 선진국 및 개도국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선박류는 수주량이 풍부하여 별다른 돌출변수가 없는 한 상반기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반도체는 최근 가격 하락으로 고전해왔으나, 하반기에는 가격상승이 예상되며 가격상승폭이 클 경우 두 자리 수 성장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석유제품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시아 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호조가 기대됨.

■ 하반기에도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은 둔화되는 반면, 對개도국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신흥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속도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하반기 우리나라

의 수출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2008년 상반기 주요개도국에 대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증가율은 중국 27.5%, ASEAN 36.6%, 중남미 29.5%, CIS 37.7%임.
- 반면, 동 기간 중 경기 둔화로 인해 미국(1.8%), EU(10.8%)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전년에 비하여 감소함.
-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둔화로 하반기에도 對선진국 수출 성장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만,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이를 상당 부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됨.
- 무선통신기기, 선박, 일반기계 수출의 호조 및 對개도국 수출 증가 등의 요인이 지속되고, 고유가의 거품이 서서히 걷히면서 하반기 무역수지는 균형 내지 소폭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전반기 무역수지 적자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및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소비자들과 업계의 대응,⁴⁾ 非OPEC 국가의 원유 공급 증가 등으로 유가 상승세는 하반기에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음.
- 내수침체에 따른 수입 수요의 감소가 무역수지의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무역수지의 개선이 국내 경제의 긍정적인 흐름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경기 악화를 반영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음.

4. 투자 현황 및 전망

가. 투자 현황

■ 2008년 2/4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18억 달러로 전기대비 증가율은 2분기 연속 30% 이상 감소함.

- 그러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08년 1/4분기에 69.8%, 2/4분기에 3.5% 증가하여 2008년 상반기에만 35.0%의 높은 상승을 보임.

4)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는 소비자의 의식변화, 자동차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성 강화에 따라 원유 수요가 2007년 최고점(peak demand)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함.

- 즉, 2008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45.5억 달러로 양호한 실적을 보임.

■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및 영국에 의한 투자가 여전히 높음.

- 2008년 상반기의 경우 미국(6.9억 달러), 영국(6.9억 달러), 일본(6.4억 달러) 순으로 많은 투자를 유치하였음.

- 특히 미국 및 일본으로부터 투자의 2008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각각 100.4%, 124.1%로 대폭 증가하였음.

- 이러한 미국, 일본, 영국에 의한 투자는 전통적으로 많았음.

◦ 실제 2001년부터 2008년 2/4분기까지 한국은 미국(218억 달러), 일본(106억 달러), 영국(61억 달러)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유치하였음.

◦ 또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775억 달러) 중 상기 3국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9.6%로 높음.

■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전가전자에,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음.

- 2001년부터 2008년 2/4분기까지의 투자현황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91억 달러)에서,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188억 달러)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함.

◦ 전기·전자의 경우 반도체(65억 달러)에 대한 투자가, 금융보험의 경우 금융업(166억 달러)에 대한 투자가 많았음.

■ 2008년 상반기 중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한 미국, 영국, 일본의 산업별 투자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국가별로 주요 투자 산업이 다르나, 서비스업의 경우 3국 모두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 제조업의 경우 미국은 화공, 일본은 비금속광물, 영국은 전기·전자에 많은 투자를 함.

- 특이한 점은 2001년부터 2008년 2/4분기까지 투자는 제조업의 경우 미국, 일본은 전기·전자에, 영국은 화공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2008년 상반기의 투자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달라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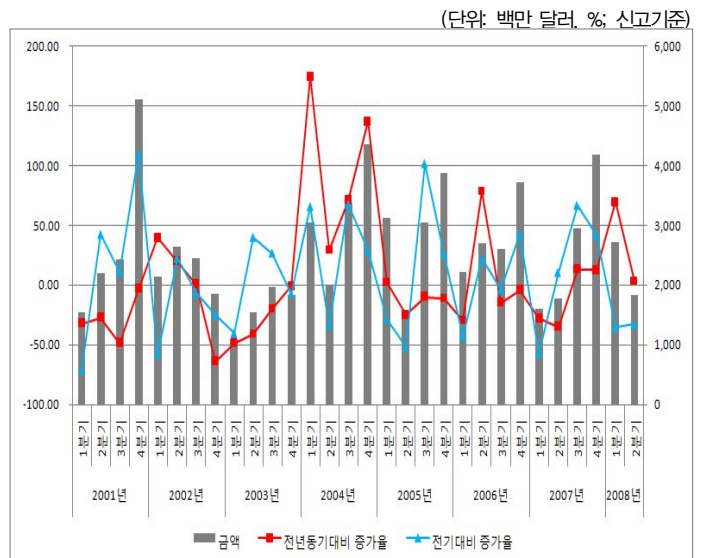
■ 2008년 1/4분기 해외직접투자는 60억 달러로 전기대비 증가율은 33.4% 감소함.

- 그러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84.5%로 1/4분기의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또한 2008년 1/4분기의 해외직접투자는 2007년 4/4분기를 제외하면 최근 7년간 가장 높은 분기별 투자금액임.

- 즉, 2008년 1/4분기 해외직접투자 역시 외국인직접투자와 동일하게 양호한 실적을 보임.

그림 2.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주: 금액은 오른쪽, 증가율은 왼쪽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http://www.mke.go.kr/index2.html>)

■ 국가별로는 중국 및 미국으로의 투자가 활발함.

- 2001년부터 2008년 1/4분기까지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640억 달러)중 중국(184억 달러), 미국(130억 달러)으로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9.0%에 달함.

- 2008년 1/4분기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역시 중국 및 미국으로의 투자가 많았음.

◦ 단, 미국으로의 투자(20억 달러)가 중국으로의 투자(8억 달러)보다 많은 것이 이전과 다른 점임.

■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전자부품에,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 제조업의 경우 2008년 1/4분기에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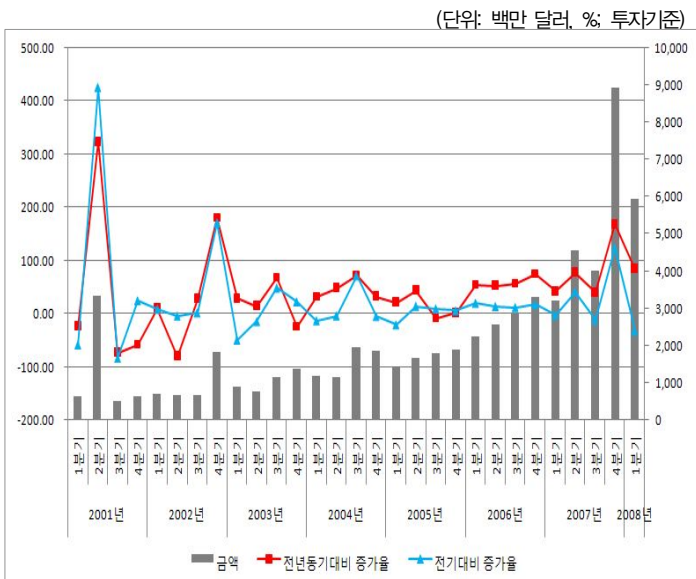
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할 점은 최근에 들어 광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 2001년부터 2008년 1/4분기까지의 광업에 대한 투자(66억 달러) 중 2006년 투자는 14억 달러, 2007년 투자는 20억 달러, 2008년 1/4분기 투자는 17억 달러로 최근 투자가 활발함.
- 한국의 주요 투자국인 중국 및 미국의 산업별 투자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는 양국에 모두 전자부품에 대한 투자가 많았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에는 금융보험업에, 미국에는 도소매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 그러나 2008년 1/4분기의 제조업 투자의 경우 중국에는 자동차산업에, 미국에는 화공에 많은 투자를 함.
- 또한 2008년 1/4분기 광업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이 미국으로의 투자(11.5억 달러)임.

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전망은 OECD(2008)와 동일한 것임.
- OECD(2008)에 따르면 OECD 회원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는 2007년 1.37조 달러에서 2008년 1.04조 달러로 감소함.
- 그러나 EIU(2007)는 한국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2008년에 32.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Global Insight 역시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 외 2008년 상반기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양호하였고, 과거 하반기의 실적이 상반기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면 2008년 하반기의 투자 역시 양호할 수 있음.
- 즉,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2008년 전세계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한국으로의 투자는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2008년 상반기의 투자실적 역시 양호하여 2008년 하반기 역시 투자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해외직접투자 동향



주: 금액은 오른쪽, 증가율은 왼쪽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www.koreaexim.go.kr/kr/oeis/m03/s01.jsp>)

나. 투자 전망

- EIU(2007)에 따르면 2008년 전세계 투자는 전년에 비해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약 30%씩 증가한 직접투자는 2007년에 들어 10% 증가에 그치고, 2008년에는 일시적

- 특히, 2008년 하반기 금융공기기업의 매각이 시행되는 등 국내개혁조치가 가시화되면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EIU(2007)는 2007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Global Insight에서는 1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2007년 4/4분기와 2008년 1/4분기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매우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한국의 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투자를 유보할 수 있음.
- 즉, 해외투자의 경우 Global Insight의 높은 투자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전 2분기간의 투자가 많았고 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의 투자가 감소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2008년 하반기의 투자는 전년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KIEP

〈참고문헌〉

- 매일경제신문, 2008. “경상수지 흑자 계속될까.” (7월 28일)
- 지식경제부, 2008.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전환 전망.” 보도자료, (7월 2일)
-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ke.go.kr/index2.html>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www.koreaexim.go.kr/kr/oeis/m03/s01.jsp>
-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2008. “Oil at the Break Point.” Special Report.
- EIU, 2007. *World Investment Prospects to 2011: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Challenge of Political Risk*.
- Global Insight, <http://www.globalinsight.com>
- OECD, 2008. “OECD FDI Outflows and Inflows Reach Record Highs in 2007 but Look Set to Fall in 2008.” *OECD Investment News*, issue 7. (June)

연구진:

-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장 (jksuh@kiep.go.kr, Tel: 3460-1156)
- 송백훈 무역투자정책실 FTA팀장 (bsong@kiep.go.kr, Tel: 3460-1208)
- 김준동 무역투자정책실 선임연구위원 (jdkim@kiep.go.kr, Tel: 3460-1028)
- 정철 무역투자정책실 연구위원(cchung@kiep.go.kr, Tel: 3460-1184)
- 이경희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khyi@kiep.go.kr, Tel: 3460-1083)
- 김혁황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hhkim@kiep.go.kr, Tel: 3460-1135)
- 김정곤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jgkim@kiep.go.kr, Tel: 3460-1093)